

터키의 여름을 파랗게 물들이는 항구도시

갈레오레노에서 직달수원 아코나리스부터 페니스를 향하는 길에, 바위에 박힌
이름다운 성채 세르스카사 - 크루즈 여행, 스노클링, 바다 낚시와 함께하는 수놓은
다양한 여름 레크리에이션의 공간



터키의 여름은 갈레오레노(Galeo-Reden), 페니스(Peris)와 아코나리스(Akonis) 해변을 향하여 파랗게 물들이며, 바다와 맞닿은 길 양쪽 끝까지 이어져 왔던 터키의 여름 휴가 도시임을 보여준다. 터키를 넘어선 세계 최대의 여름 해변에 있는 터키의 항구 도시들은 여름 6월에서 10월 말에 걸쳐 휴가와 휴식, 휴양을 위한 온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휴양을 위한 온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터키의 여름 휴가 도시들은 갈레오레노, 페니스, 크루즈 여행, 스노클링, 바다 낚시와 함께하는 수놓은 다양한 여름 레크리에이션의 공간을 제공한다. 갈레오레노, 페니스, 크루즈 여행, 스노클링, 바다 낚시와 함께하는 수놓은 다양한 여름 레크리에이션의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여름 휴가 도시들이 갈레오레노, 페니스, 크루즈 여행, 스노클링, 바다 낚시와 함께하는 수놓은 다양한 여름 레크리에이션의 공간을 제공한다. 갈레오레노, 페니스, 크루즈 여행, 스노클링, 바다 낚시와 함께하는 수놓은 다양한 여름 레크리에이션의 공간을 제공한다.